전남도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 박차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처리 시설 국비 확보 착수
여수 51만㎡ 챌린지파크 착공 등
남부권 관광 개발 국비 확보 탄력

전남도는 올해 관광단지 조성사업 활성화에 이어 내년 정부예산안에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등 현안사업 관련 국비 151억원을 반영, 지역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30년간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분양에 걸림돌이었던 하수처리시설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 결과 올해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2017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7억원을 확보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은 1500t/일 규모다. 총 사업비 213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내년도 설치비 33억원 국비 지원을 건의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관광호텔&리조트를 추진 중이다. 2022년 착공 예정으로 도는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 정부예산안에 108억원이 포함됐다. 관광호텔은 객실 120실을 비롯해 부대시설로 인피니티풀, 레스토랑, 연회장 등을 갖추게 된다. 총사업비 410억원을 들여 2023년 개장할 계획이다.

여수 화양면 나진리 일원 51만㎡ 부지에는 지난 7월 착공식이 열린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도 조성한다. 2025년까지 2300억원을 들여 익스트림 체험시설을 비롯한 총 566실 규모 호텔, 아트빌리지·드림하우스 33실, 풀빌라하우스 16실 등 복합 레저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로 우뚝 설 전망이다.

또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신안 자은 해양관광단지, 함평 사포관광지 확대 개발 등 체류형 관광기반 시설도 계속해서 확충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오는 10월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이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기재부와 문체부에 용역비 반영을 적극 요청, 내년 문체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5억원을 편성했다.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5개 시·도를 대상으로 남해안의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글로벌 해양관광거점 구축 프로젝트다. 2023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는 문체부의 기본계획 용역에 전남의 특색을 살린 자체 발굴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한국섬진흥원과 연계해 섬·해양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사업의 국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농업박물관
전통방식 벼베기 체험
수확의례 '올벼심니' 재현도

전남도농업박물관은 대풍을 이룬 가을 들녘에서 전통 방식으로 벼를 수확하고 탈곡하는 체험행사와 첫 수확 감사의례인 올벼심니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수확 체험행사는 오는 10월 2일 농업박물관 농업테마공원 전통모내기 체험장에서 진행한다. 벼를 낫으로 직접 벤 뒤 개상·홀태·그네·풍구 등 여러 재래 농기구를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탈곡까지 하는 체험행사다.

농업박물관은 이에 앞서 10월 1일 쌀문화관 광장에서 '코로나19 종식 기원을 위한 '올벼심니(풋바심) 재현' 행사도 준비했다. '올벼심니'는 그해 처음 수확한 벼를 찧은 쌀로 밥을 지어 가장 먼저 조상에게 '올벼(일찍 된 벼)로 심례(마음의 예)를 올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민선 7기 3년간 식품산업 매출·고용 급성장

매출 2조3796억→2조8822억
고용인원 9602명→1만3234명

전남도가 민선7기 들어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식품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한 결과 식품 제조업체 연간 매출액과 고용이 크게 늘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식품 제조업체 연간 매출액은 2017년 2조3796억원에서 2020년 2조8822억원으로 민선 7기 3년간 5026억원이 증가했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017년 10억9000만원에서 2020년 12억9000만원으로 2억원이 늘었다. 식품 제조업체 수는 2017년 2593개소에서 2020년 2714개소로 121개소가 많아졌다. 수출은 2017년 183개소, 2429억원에서 2020년 227개소, 4061억원으로 44개소 1632억원이 증가했다.

상용직 고용 인원은 2017년 9602명에서 2020년 1만3234명으로 3632명이 늘었다.

이처럼 매출액, 고용인원 등이 증가한 요인은 민선 7기 들어 지역 전략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식품산업을 중점 육성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18년부터 올해까지 농식품 제조기반 구축과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사업, 강소농 식품가공산업 육성, 향토산업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등 총 190개소에 943억원을 지원한 것도 한몫했다.

공격적인 수출 마케팅을 통한 수출 성과도 식품산업 성장을 견인했다. 지난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 매출액 326억원 달성,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전남도관 입점 등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4억6230만 달러 수출액을 기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노인 일자리 활동 사진전…10월 1일까지 도청 윤선도홀

전남도는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10월 1일까지 5일간 도청 1층 윤선도홀에서 '노인일자리 활동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사진을 선보여 사업을 알리고,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전에는 순천시 공공시설봉사단 '꽃보다 할배', 곡성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단 '바람개비와 어르신', 구례군 영농사업단 '감자가 많이 자랐을까?', 해남군 미남반찬사업단 '어머니들의 특별한 반찬가게'〈사진〉, 진도군 환경지킴이단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등 30점이 전시된다.

여수 연도·신안 옥도 '가고싶은 섬' 가꾼다

전남도 5년간 50억원씩 지원

여수 남면 연도와 신안 하의면 옥도가 2022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신청 3개 시·군 5개 섬에 대해 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섬 고유 생태자원, 매력적인 섬 문화,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타 사업과의 연계성, 주민 참여 및 시·군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여수 연도와 신안 옥도에는 이들 섬만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 발굴을 통해 생태문화관광자원화, 마을경관 개선, 주민 역량 강화와 소득사업 등을 위해 1개 섬당 5년간 50억원(1년에 10억원씩)을 지원한다.

연도는 244가구, 41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아름다운 섬이다. 102종의 주요 식물이 자생하고, 동백나무, 목나무 군락지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섬 외곽으로 '바다 위 바위 박물관'이라 할 만큼 기암괴석의 해식애가 발달해 천혜의 절경을 자랑한다. 산호초가 널리 분포한 아름다운 수중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암석마다 전해지는 설화와 전설을 '연도 열두 가지 이야기'로 주민들이 정리한 이야기의 섬이기도 하다.

옥도는 59가구, 109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섬이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넓고 깨끗한 갯벌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신안 다이아몬드제도(자은~암태~팔금~안좌~장산~상태~하의~도초~비금)의 가운데 위치해 빼어난 해양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기지, 목욕탕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기상관측소 등 근대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근대역사탐방이 가능하다. 당숲 등 섬문화 자원을 보유해 섬 고유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관광객이 일상에서 벗어나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안정감과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유튜버와 떠나는 전남여행' 공모…10월 31일까지 접수

전남도와 전남도관광재단은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2021 유튜버와 떠나는 전남여행'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13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여행 유튜버 '여행가 제이'가 '전남 여수 배낭 여행기'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한다.

공모전 참여는 구독자 3000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전남의 관광지, 음식, 체험 등 여행 관련 주제로 제작한 10분 내외 분량으로 미발표작이어야 한다. 10월 31일까지 이메일(jnyoutube@naver.com)로 접수하며, 1인(팀)당 1작품만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전남관광재단 누리집(www.ijnto.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우수 영상작품 선정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심사를 3회 진행한다.

시상은 대상 1편 700만원, 금상 1편 300만원, 은상 1편 200만원, 동상 2편 각 100만원, 입선 25편 각 50만원이다. 수상작은 11월 25일 발표하고 수상자(팀)에게 개별 통보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